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장쩌민 집권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 연구

- 중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오 요

# 장쩌민 집권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 연구

— 중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Period of Jiang Ze-min Government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오 요

장쩌민 집권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 연구  
- 중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기 광 서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오 요

## 오요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미경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지병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기광서 (인)

2016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
Abstract .....	III
<b>제1장 서 론 .....</b>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2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3
제4절 이론적 고찰 .....	5
<b>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북 이해관계 .....</b>	<b>9</b>
제1절 중국 대외정책 및 국가이해관계의 특징과 변화 .....	9
제2절 대북 이해관계의 변천 .....	14
1. 마오쩌둥 시기: 이분법의 공고화 .....	14
2. 덩샤오핑 시기: 혈맹 추구와 실리 모색 .....	16
<b>제3장 장쩌민 시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b>	<b>20</b>
제1절 대외 정책의 성격 .....	20
제2절 대북정책의 기조와 전개 .....	25
<b>제4장 장쩌민 시대의 대북정책 영향요인 .....</b>	<b>37</b>
제1절 북한 핵문제 .....	37
제2절 한중수교 및 등거리외교 .....	41
<b>제5장 결 론 .....</b>	<b>47</b>
<b>참고문헌 .....</b>	<b>49</b>

## 표 목 차

<표 1> 시기별 중국의 국가이익 변화 .....	24
<표 2> 1978-1989년 북중 고위지도자의 상호 방문 .....	26
<표 3> 북중무역통계 1992-2002 .....	29
<표 4> 중국의 대북원조 .....	32

## ABSTRACT

#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Period of Jiang Ze-min Government

Wu Yao

Advisor: Prof. Kee, Kwang Seo, Ph.D.  
Division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uring post-cold war by Jiang Zeming's government. It mainly analyzes China's attitude and reaction on "The 1st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since Sino-ROK diplomatic relationship that was established in 1992 is analyzed.

Since 1978, China has pursued a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which gives priority to lifting its economic development. So China regards regional stability on the neighboring Korean peninsula as its primary interest to promote the favorable peripheral enviro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Moreover, North Korea's collapse will destroy China's strategic buffer and bring U.S. troops close to China's border. Therefore during the 1st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China has pushed for a diplomatic solution, resisted U.S. efforts to implement sanctions and provides the food and energy supplies within the compass of lifeblood.

From external influence, after cold-war, China's growth and development treated as potential threat to western. The containment



policy towards China leads China to keep friendly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urthermore, in order to oppose the U.S expansion power in Northeast Asia, China committed to make a positive and comprehens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n the period of Jiang Zeming's government.

With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eep the stability of the peninsula for as long as possible to serve the interests of Chin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China steadily push forward the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between North Korea and U.S.

North Korea frustr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hina-South Korea diplomatic ties in 1992. However,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situation of isolation forced North Korean government to keep on good terms with China. The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is affected by the requirement of the two nation's interest.

In conclusion, it can be suggested that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China-North Korea relations do not serve as security alliance any more, and only the nation interest has kept North Korea and China on a close relationship.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유라시아의 동쪽에 있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고 있으며, 이 전략적인 위치는 주변대국 이익의 합류점으로서 각 세력의 각축장이었다. 북중간에는 1400km에 달하는 국경선의 존재와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요지로 인식되어 왔다. 제2차세계대전 시기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한반도를 교량으로 삼아 중국 만주지역을 점령하였다. 한반도의 안전 및 평화는 중국에게 지니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 실례였다.

1970년대 이후 대미 관계의 개선과 함께 중국은 현존 국제체제에 융합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성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는 외교 역량의 강화로 이어졌다. 특히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후 중국은 소련의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강대국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냉전시기에 북중소 동맹은 한미일과 대치하였다. 냉전 후 이런 균형을 깨기 위해 소련과 중국은 연이어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었지만,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 여전히 냉전시대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남북간의 분열이라는 불안전 요소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중관계는 전통적인 혈맹에 기초한 관계로 출발하였고, 이것은 한국전쟁 시기 양국의 관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발현되었다. 그러나 공통의 이념적 토대위에 세워진 관계는 국가 이익이라는 현실적 요인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시기적 변천 속에서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다. 북중관계는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규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차 동북아질서의 변화는 북중관계의 양상이 절대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중관계의 전환적 국면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촉발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이념에 입각한 전통적 관계는 국

가이의적 요소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의 유대는 점차 다른 질로 전환된 것이다. 장쩌민 시대의 대북정책을 주요 논제로 삼고자하는 것은 ‘이념에서 이익’으로 무게추가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형성된 북중관계의 모형이 오늘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재생산되는지 그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장쩌민 전(前)시기에 이르는 북중외교 역사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장쩌민 시기의 대북 정책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특히, 해당 시기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북 정책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의 갈등과 협력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와 한중관계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은 문헌 중심의 연구방식을 취하며 탈냉전 시기에 중국의 외교 정책변화에 따라 장쩌민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서술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사료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불과 20년 내외 기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사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북한측에서 사료 공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접근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위해서 필자는 비록 공개 문건이기는 하나 그 속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중국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중국고위층 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이 분석되고, 그에 따라 주로 중국의 시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기조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장쩌민 시기에 북핵문제 및 한반도 안전에 직간접적인으로 영향을 미친 한중수교를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89년에 시작되는 장쩌민 집권기를 시기적 범주로 하여 국제정세에 따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 양국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추적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총5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냉전시기 북중소와 한미일이 세력균형을 형성한 후 북중관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장쩌

민 집권 시기에 들어 북중관계의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제4장은 장쩌민 집권기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규제한 요인들 가운데 북핵 문제와 한중 수교를 살펴볼 것이다.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중국학자들의 북중관계 연구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에 따라 한중 학계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만 장쩌민 시기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성과는 매우 드물며, 다른 연구의 부분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한 『중국 대조선·한국 정책문헌 총집 1949-1994』<sup>1)</sup>과 『중국과 한반도국가와의 관계의 문건자료 회편 1991-2006』<sup>2)</sup>은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지도자의 발언, 정부간 공동 성명, 국가간의 공보 및 계약 내용 및 인민일보(人民日报)와 신화사(新华社)의 논평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집들은 한중 및 북중관계의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1차 문헌자료이다.

양쥘(杨军)은 신라시기부터 2006년까지의 한반도와 중국 관계의 변천과정 및 특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sup>3)</sup> 그에 따르면, 냉전 후 중국은 등거리 외교방식을 통해 남북한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를 견지하고 남북간이 자주적 협상으로 핵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진봉군(陈峰君)과 왕전검(王传剑)은 중국이 평화공존5원칙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sup>4)</sup>

최지웅(崔志鷹)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군사적인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경제적인 역할의 상승 추세에 따라 대국간에 상호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정세

1) 刘金质·杨淮生,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1949-1994)』,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  
 2) 刘金质·潘京初, 『中国与朝鲜半岛国家关系文件资料汇编(1991-2006)上』, 世界知识出版社, 2006.  
 3) 杨军·王秋彬, 『中国与朝鲜半岛关系史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4) 陈峰君·王传剑, 『亚太大国与朝鲜半岛』, 北京大学出版社, 2004.

가 더 안정적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5)</sup> 반면 유지(You Ji)는 한반도의 정세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6)</sup> 그 이유는 앞으로의 북중간 공동의 이익이 한계가 있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석진은 한반도의 국세가 미중간의 협작에 달려 있다고 보면서 모든 나라들은 북한을 평등한 협력자로 대해야 하고 모든 나라들이 인도주의 지원할 때 어떤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여겼다.<sup>7)</sup> 이종석은 북중관계를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로 구분하고 탈냉전시기의 북중관계는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탈냉전기에 북중관계 변화를 야기시키는 대외환경변화 및 양국의 발전전략의 차이점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sup>8)</sup>

리단은 냉전시기에 북중 ‘순치적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갈등을 공식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며, 현안 문제에 대한 비공개적인 처리방식을 취하였다고 강조하였다.<sup>9)</sup> 장선은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의 심화에 따라 세계체제의 편입을 필연적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고수한 북한과 어긋난 데가 있다고 보았다.<sup>10)</sup>

장쩌민시기 발생했던 핵위기에 대해 박건일(朴健一)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다는 논조에 반대하였다.<sup>11)</sup> 중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중국이 한반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관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주련(周玲)은 북중은 냉전 후 지역적인 영향 및 같은 정체성이 있지만 경제발전의 견해가 다른 북중 관계를 특별한 동반자 관계로 분류하였다.<sup>12)</sup>

5) 崔志鷹, 『大国与朝鲜半岛』, 卓越出版社有限公司, 2000.

6)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October 28, 2001.

7) 张锡镇, “对朝鲜政策的再思考.” 『国际政治研究』, 2000年第2期.

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중심, 2000.

9) 리단,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03.

10) 장선, “한중수교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장쩌민·후진타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2009.

11) 朴健一, “朝鲜核问题及其未来走向.” 『当代亚太』, 2003年第3期, pp. 23-26.

12) 周玲, “冷战前后中朝关系研究.” 电子科技大学硕士论文, 2010, p. 30.

## 제4절 이론적 고찰

국가는 자국의 안보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타국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행동은 일종의 자구책으로서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는 필연적인 행동원리이며, 그 목적은 자기보호이다.<sup>13)</sup> 그런데 국가는 스스로의 힘에만 의지해 자국의 안전보장과 이익을 항상 추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안전과 이익을 위해 국가가 취하는 수단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동맹이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유사시 서로 군사적으로 지원과 협력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맺어지며 이를 통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실현한다.<sup>14)</sup>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동맹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동맹은 목적에 따라 세력균형, 위협균형, 이익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강대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는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균형, 이익에 따라서 동맹을 형성한다.

세력균형 동맹은 가장 널리 알려진 동맹에 대한 설명방식이다. 세력균형적 입장에서 동맹은 강자에 대한 편승(bandwagoning)과 균형(balancing)이라는 대립적인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6)</sup> 왈츠(Kenneth N. Waltz)에 의하면 편승은 국내적 차원에서 현명하지만 국제체제에서 지속적인 편승 행위는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복속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가들은 “국력증강을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때로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형성”하려 한다.<sup>17)</sup> 곧 ‘균형을 이루려는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제일 당면과업은 힘이 아닌 생존이다. 곧 “생존이 보장된 뒤 평화, 이익, 힘 등의 문제를 고려”하

13) 케네스 왈츠 지음, 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평론, 2007, pp. 168-174.

14)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Cornell Univ. Press, 1987, p. 12 (백성호, “탈냉전기 미일 안보동맹의 지속과 변화: 시기별 동맹이익과 동맹관계의 특징,”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1호, 2007, p. 213-214. 주1 재인용).

15) 이수형,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세계정치』 16권, 2012, p. 145.

16) 세력균형은 ‘분산으로서 의미’, ‘균형정책’, ‘다극체제의 역사적 사례 묘사’ 등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동맹은 다극체제로서의 세력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Joseph S. Nye 지음, 양준희, 이종삼, 『국제분쟁의 이해』, 파주: 한울, 2009, pp. 110-124.

17) 케네스 왈츠 지음, 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평론, p. 196.

기 때문에 강대국은 일차적으로 위협 대상이 된다.<sup>18)</sup> 따라서 국가는 강대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한 동맹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한다. 편승보다 세력균형이 동맹의 주된 모습인 것이다.

윌트(Stephen M. Walt) 역시 왈츠와 마찬가지로 세력균형을 편승보다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의도의 변화 가능성과 불신 때문에 강한 국가가 자비로운 국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위협에 균형을 취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sup>19)</sup> 잠재적인 위협은 단순히 힘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 공격능력(offensive power), 공격의도(aggresive intentions) 등의 좀 더 포괄적인 위협이며, 이 위협이 균형을 재촉하는 것이다.<sup>20)</sup> 윌트는 국가의 힘과 능력이 취약하고 외부의 원조 가능성이 없으며, 강대국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강대국에 편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약소국의 편승 결정은 세계적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1)</sup> 약소국들은 현상변경을 목적으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동맹을 형성하더라도 국가들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세력균형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윌트는 동맹을 통해 힘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왈츠나 윌트의 동맹이론은 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구조주의적 현실주의 동맹이론은 냉전질서 아래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진영이 서로 상대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기 세력의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균형을 실시했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설명틀을 제공했다. 많은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각 동맹진영에 연합한 것이다. 그러나 왈츠나 윌트의 동맹이론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을 전제로 해서 동맹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의 입장에서 동맹 형성이 전적으로 생존 또는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냉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균형의 한 축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양한 나라의 동맹들이 세력균형 자체에 목적을 두는 지도 의문이다. 과연 동맹이 생존과 위협에 대한

18) 위의 책, p. 197.

19)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Spring, 1985), p. 15.

20)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영,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15, p. 97.

21)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pp. 17-18.

반응으로만 형성되는가.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가인 스웰러(Randall Schweller)은 왈츠의 세력균형적 동맹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익균형’적인 동맹이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력균형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구에 의해 발생하고, 편승은 이익 때문에 발생한다.<sup>22)</sup> 또한 그는 기존의 구조주의적 현실주의 동맹 이론이 생존-세력균형-현상유지 경향으로 인해 편승행위를 낮게 평가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현상변경 국가를 동맹연구의 또 다른 축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조한다.<sup>23)</sup> 그는 구조주의적 현실주의 이론의 국제체제에서 국가행위의 동질성 전제(前提)를 반대하는 것이다.<sup>24)</sup> 스웰러는 국가유형을 생존이 아닌 이익에 따라 나눌 경우 국가들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이라는 축으로 국가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을 바라볼 경우 동맹을 세력현상유지동맹 또는 현상타과동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의 형성은 단순히 위협 또는 생존에 대한 반응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에 따른 반응인 것이다. 스웰러는 이를 더 발전시켜 이익 추구에 따른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의 변수들과 함께 고전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사용한 상대적인 힘이라는 변수를 추가시켜 국가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기도 했다.<sup>25)</sup> 스웰러가 말하는 이익은 일반적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는 좀 다른 것으로 어떤 국가가 현재의 세력균형에 대한 만족-불만족 하는지를 이익의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이 구분은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이익의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국가이익은 대외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도구이다.<sup>27)</sup> 국가이

22)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p. 74.

23)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p. 99.

24) 국제체제에서 국가행위의 동질성은 세력균형이 국가가 원하는 그렇지 않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행위가 동질적이며 국가들 간의 체계는 서로 모방하기 때문에 유사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케네스 왈츠 지음, 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 p. 199-200.

25) 스웰러는 국가의 상대적 힘과 현상유지 또는 현상변경 성향에 따라 국가 유형은 여덟 개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를 늑대, 사자, 자갈 등의 동물에 비유했다. 이를 통해 성향이 다른 국가들의 조합에 따라 국제체제의 안정성도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근욱, 『왈츠 이후』 파주: 한울, 2009, p. 109.

26) 이근욱, 『왈츠 이후』, p. 102. 주 6.

27) 구영록, “대외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1호, 1994, p. 1.



익이 발현되는 범위는 자국의 생존에서부터 국제환경의 우호적 환경 조성 유도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sup>28)</sup> 이러한 국가이익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공간 및 시간의 맥락에서 형성된다.<sup>29)</sup> 웬트 (Alexander Wendt)는 한반 더 나아가 국가이익은 물질조건과 인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본다.<sup>30)</sup> 그에 따르면 이익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 실제로 물질적이며 나머지는 고유한 관념이나 문화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한다.<sup>31)</sup>

옌취에통(閻學通)은 국가이익은 일체 민족, 국가, 모든 인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32)</sup> 물질적으로 국가는 안전 및 발전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국가는 국제사회의 인정 및 존중이 필요로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안전이익, 정치이익, 경제이익, 문화이익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이익내용도 변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본 논문은 동맹과 이익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북한과 중국 역시 시기적으로 중국의 국가이익이 재구성되었고 이러한 이익구성의 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겠다.

28) 구영록,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p. 10.

29) 조셉 프랑켈 지음, 이삼성 옮김, 『국익』, 서울: 대광문화사, 1991, p. 58.

30) 이근욱, 『왈츠 이후』, p. 255.

31) 알렉산더 웬트 지음, 박건영외 옮김,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2009, p. 173.

32) 閻學通, 『中国国家利益分析』, 天津人民出版社, 1997, p. 10.

##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북 이해관계

### 제1절 중국 대외정책 및 국가이해관계의 특징과 변화

국익은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역시 건국과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늘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 했다. 중국은 건국 이래 자국이익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면서 각 국가와의 관계를 조절하고 지체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해 왔다. 중국은 시기별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차이로 인해 외교정책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건국초기에 중국의 국가이익은 새로 탄생한 공산당정권을 수호하고 중화 민족의 독립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이었다.<sup>33)</sup>

공산당정권 영도하의 민족의 독립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지도부는 대등한 기초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중국의 대외활동은 독립자주적인 기본방침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독립자주”의 내용은 중국자신의 상황에 맞게 중국차체의 힘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외교자주권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중국의 근본이익과 장구한 이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sup>34)</sup> 즉 평등호혜, 영토완정과 주권을 호상존중 하는 전제하에서 외교관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sup>35)</sup>. 건국초기에 소련과 동유럽을 비롯한 중국에 우호적인 여러 국가들은 이 원칙에 동조하였고 그에 따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마오쩌둥 시기의 대외정책은 당시의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건국전후에 ‘일변도’ 정책을 비롯한 ‘3대 정책’, 제2단계는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의 ‘반미반소’ 정책, 제3단계는 70년대의 미국과 협력을 통한 ‘소련 봉쇄정책’이다.

‘일변도(一邊倒)’, ‘따로 부뚜막을 쌓다(另起爐灶)’ 및 ‘방을 깨끗이 치운 후에 손님을 초대하다(打掃乾淨屋子再請客)’ 3대정책은 1949년 미국의 “소련 거세정책”에 대한 대항에서 기원하였다.

33) 沈志华·杨奎松, 『美国对华情报解密档案(1948-1976)3』, 东方出版中心, 2009, p. 260.

34) 于化民, “三大政策与独立自主的新中国外交.” 『安徽史学』, 2007年第五期, p. 88.

35) 章百家, “从‘一边倒’到‘全方位’.” 『中共党史研究』, 2001年1期, p. 22.

마오쩌둥의 ‘일변도 정책’은 1949년 6월 30일 마오쩌둥의 「인민민주전정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글은 손중산(孫中山)의 40년 경험과 중국공산당의 28년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중심내용은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제국주의 측으로 기울지 않으며 사회주의 측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이 두길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sup>36)</sup> 1949년 2월 연안 시배포(延安西柏坡)에서 마오쩌둥과 미코얀은 중국공산당의 현상황과 미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일치성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6월에는 유소기가 소련을 비밀 방문하였으며, 여러 정책에 있어 일치성이 진일보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중소동맹의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sup>37)</sup>

‘따로 부뚜막을 썰다’는 중국공산당과 외교관계를 수립을 원하는 나라는 국민당 정권과 맺은 외교관계를 단절 하여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8)</sup> ‘방을 깨끗이 치운 후에 손님을 초대하다’ 은 국민당정부 시기의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아편전쟁부터 장개석의 국민정부시기까지 100여 년 간 중국에 형성된 제국주의 세력과 영향을 숙청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더 이상 이전의 반식민지가 아니며 굴욕외교와 선을 긋고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미래의 신중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환경에서 1950년 2월에 중국과 소련은 <중소우호동맹협조조약>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중국은 상대적인 안전을 얻었고, 소련의 지원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1949-1955년 사이 중국은 소련을 비롯한 알바니아, 북한 등 22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마오쩌둥은 장개석의 중화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님을 비판하면서 “우리 일변도는 소련과 밀접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한 일변도”<sup>40)</sup>라고 표명했다. 또한 일변도 노선은 중국의 독립과 국가주권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잘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sup>41)</sup>

36) 章百家, 앞의 글, p. 22.

37) 沈志华, “从西柏坡到莫斯科:毛泽东宣布向苏联‘一边倒’.” 『中共党史研究』, 2009年第4期, p. 33.

38) 蒋建农, “关于新中国外交方针的几个问题.” 『当代中国历史研究』, 1996年第2期, p. 26-27. 『周恩来外交文选』, p. 48.에서 재인용.

39) 于化民(2007), 앞의 글, P. 88.

40) 于化民(2007), 앞의 글, p. 89.

3대 정책은 막 혁명에 성공한 마오쩌둥의 혁명성이 반영되면서 신중국이 굴욕적인 외교역사에서 간절하게 벗어나고 신생 정권 및 영토완정의 국가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의 국가이익과 중국공산당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높은 수준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정책은 신생정권을 공고화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중국의 장기발전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을 고립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sup>42)</sup>

한국전쟁에 따른 후유증은 매우 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더욱 더 평화공존을 강조하였다. 1954년 6월 인도와 중국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5개항의 외교 원칙, 즉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적 공존은 이후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평화 5원칙은 중국외교의 장기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고, ‘일변도’ 정책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었다. 이때 국제환경은 흐루시초프의 서방 진영과 평화공존 및 경쟁의 모색으로 인해 중국과 소련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미소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한 반면 중소간에는 1958년부터 이념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소련을 수정주의 및 우경 기회주의자로 비난하였고,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을 교조주의 및 좌경급진주의자로 몰아세웠다.<sup>43)</sup> 급기야 1961년 흐루시초프는 중국의 산업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던 소련 기술인력 및 전문가를 기한 내에 철수시킬 것을 발표하였으며, 중소관계의 파열은 중국으로 하여금 ‘일변도’ 정책이 갖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1964년부터 중소 국경선을 중심으로 일련의 충돌사건을 발생했다. 특히 1969년에 ‘진보도’ 사건 (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소련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확실히 인식했다. 그 결과 중국은 자국의 외교정책을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수정했는데, 그 내용은 ‘소련을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 하는 ‘두개선(兩條線) 전략’ 수립이었다.<sup>44)</sup> 중소관계의 악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으며 중국외교의 자주적인 색채는 더욱 선명해졌다.

41) 于化民(2007), 앞의 글, p. 89.

42) 章百家, “从 ‘一边倒’ 到 ‘全方位’.” 『中共党史研究』, 2001年1期, p. 23.

43) 沈志华, “中苏同盟破裂的原因和结果.” 『中共党史研究』, 2007年2期, p. 34.

44) 叶自成, “新中国外交战略的四次大调整.” <http://www.cssm.org.cn/view.php?id=111> (검색일: 2015.11.14.).

1960년대 말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소련과의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중미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희망했다.<sup>45)</sup> 이때 중소간에는 중국 동북과 신강국경지대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났다. 중국은 자국의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치국면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1971년 10월에 제26기 국제연합총회에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했다. 곧이어 1972년에는 미중정상회담을 통한 해빙 무드가 이어졌다. 1973년에 마오쩌둥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과 면담하면서 ‘하나의 선 전략(一條線 One Line Diplomatic Strategy)’을 제기한다. 이 전략은 중국, 일본에서 시작하여 파키스탄·이란·터키 유럽을 거치고 미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하나의 선’에 있는 모든 나라들 결합하고 소련패권주의를 반대하자는 뜻이다.<sup>46)</sup> 이를 통해 중국의 동맹역량을 결합하고 동맹자와 공동의 적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마오쩌둥은 1950년대의 ‘일변도’ 정책부터 1960년대의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를 거쳐 1970년대 미국을 포함한 국제역량을 결합하여 소련을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한 현실주의 특색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였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10년간의 수난을 겪고, 국가 경제는 심각한 곤경의 상태에서 새로운 기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1978년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좌경사상을 교정하고 덩샤오핑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발전하자는 것이라고 여겼고, 생산력을 발전하려면 관문을 단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sup>47)</sup> 그는 ‘대내개혁,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국제정세는 미국과 소련 양국이 세계최강국의 위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는 독립자주”적인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 방침은 “더 이상 동맹을 맺지 않고, 고립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전방위 개방외교를 실시”<sup>48)</sup>하는 것이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

45) 위의 글.

46) 迟爱萍, “毛泽东国际战略思想的演变.” 『党的文献』, 1994年第3期, p. 50.

47) 叶自成, “新中国外交思想: 从毛泽东到邓小平.” 北京大学出版社, 2001, p. 334.

48) 加藤嘉一, “邓小平对外战略与改革开放.” <http://blog.ifeng.com/article/1575836.html> (검색일:2015.11.14.).

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합법적 지위와 국토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뚜렷한 태도를 취한 마오쩌둥의 대외정책과 달리 덩샤오핑은 “다 같이 이익을 얻다(共贏)”을 강조하고, “화합이 중요하다(以和為貴)”고 주장하였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간 견해차가 있어도 양국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을 취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주변지역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반면 덩샤오핑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강권정치 및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대내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나라 되지 말자(Never take the leading role)’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 전제하에 국제문제를 처리할 때 평화공존 5원칙을 되풀이 주장하였다.<sup>49)</sup>

1989년 천안문사건 발생 및 구소련의 해체기에 새로 나타난 세계질서에 대한 덩샤오핑은 90년대 초기에 평화공존 5원칙의 전제하에 ‘도광양회(韜光養晦)’ 방침을 실시하는 게 제기하였다,<sup>50)</sup> 즉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힘을 키우는 전략으로 복잡한 국제정세하에 침착하고 냉정해야 하고 남을 제멋대로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경제발전사업을 일심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개혁·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국가주권 및 국가안전이 확인되는 동시에 경제이익을 최대국가 이익으로 상승시키게 되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쟁취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주요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교류 및 협작을 중국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sup>51)</sup>

덩샤오핑의 대외정책은 평화를 견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반면 그의 대외정책은 국가이익의 관점에 매달렸고, 국가이익은 중국이 이행할 대외정책의 가치척도로 간주하였다. 국가간의 관계는 자체의 장기적인 전략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중국의 대외정책 및 국가이익과 세계인민의 이익은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2)</sup>

49) 王宇·姜龙范, “中美正常化与两国对朝鲜半岛政策的调整.” 『延边大学学报』, 2013년6월, p. 29.  
 50) 王缉思, “中国的国际定位问题与‘韬光养晦有所作为’的战略思想.” 『国际问题研究』, 2009年第5期, p. 6.  
 51) 刘宗义, “中国共产党国家利益观的发展演变.” 『国际展望』, 2011年第4期, p. 42.  
 52) 吴建功·龚长华, “邓小平国家利益观与中国国际战略.” 『南京政治学院学报』, <http://study.ccln.gov.cn/fenke/shehuixue/shxkjs/shrwp/108012.shtml>, (검색일: 2015.11.1.).

## 제2절 대북 이해관계의 변천

### 1. 마오쩌둥 시기: 이분법의 공고화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의 국민당과 제2차 국공내전에 돌입했고 한반도는 미소가 분할하였다. 1947년부터 본격적인 냉전의 출발로서 동서 양진영이 대립의 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과 이념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공동북통치구역의 후방 기지 역할을 했다. 1946년 7월, 중국공산당 동북국이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공동북국과 북한측은 연락을 회복하였다. 북한을 통해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까지 만주 지역으로 이전한 물자자원은 무려 52만여 톤, 중계인원 2만여 명이였다. 1948년 투먼-남양 도로로만 건너간 인원은 8,685명에 달하였다.<sup>53)</sup> 북한의 지원으로 하여 국공내전의 3대 주요 전투중의 하나인 “랴오선(辽沈)전역”에서 중국공산당은 승리를 거두었다.

1948년 9월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듬해 10월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었다. 양국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하에 국가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순망치한 관계로 접어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 모택동은 소련측으로 기우는 것을 뜻하는 ‘일변도’ 대외 정책 속에서 신속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이것은 두 공산당의 강화된 유대를 반영하였다.

1950년 11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개입으로 북한이 위기에 처하자 중국은 동북지역의 안정을 보호하고 국제주의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전장에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이 전쟁에서 북한에 560만톤의 물자를 지원하였고 전쟁비용으로 60억 인민폐 구화(人民币旧币)<sup>54)</sup>을 지출하였다.<sup>55)</sup> 중국의 전쟁 개입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공통의 국가이익이었다. 전쟁 후에도 중국은 북한의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원조를 하였다. 1953년 중국의 국가 재정

53) 薛衙天, “从并肩抗日到抗美援朝.” 『近代史研究』, 2012년6期, p. 67.

54) 구화 10,000위안을 환산하면 1955년 3월에 나온 신화폐의 1위안 정도에 해당된다.

55) 权红, “中朝政治外交关系研究1949-2009.” 延边大学博士论文, 2010, p. 26.

수입은 233.5만억 인민폐 구화였고, 대북 무상원조 금액은 국가재정수입의 3.4% 차지하였다.<sup>56)</sup> 1954~1957년 4년 동안 신화폐 8억원(합 8.5억 루블)의 무상원조가 추가되었다.<sup>57)</sup>

195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양국은 각자의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북한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1961년에 북한이 소련 및 중국과 각각 동맹조약에 체결하였다. 그중에서 <중조우호협력상호 원조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sup>58)</sup>고 규정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본격적인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1966년 마오쩌둥 주도의 문화대혁명을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68년까지 북한의 신문은 중국에서의 사태에 대해 좌경기회주의, 교조주의, 대국 소비니즘 등의 용어를 사용한 비난이 게재되었다.<sup>59)</sup> 1967년 중국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간주하고 ‘호루쇼프의 제자 김일성’이라 부르기도 했다<sup>60)</sup>. 1967년 9월 중국 및 북한 각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1965년부터 북중양국 국경선에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1968년 중국쪽이 국경을 차단하기도 했다.

1965~1969년 북·중양국은 압록강 및 도문강 국경선지대에서 대치상태에 있었다.<sup>61)</sup> 북중 양국간에는 새로운 문화·경제적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양국 고위층의 상호방문도 없었다. 1967년 주중 북한대사 현준극(玄峻极)이 일시 귀국한 다음 2년이 지난 후에야 북경으로 돌아갔다.<sup>62)</sup> 이 동안 북중관계는 악화되었지만 양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서로 자제심을 보였다.

1968년 푸에블로호(Pueblo)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미국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응을 지지함으로써 양국의 관계 회복에 기회를 맞이하였다. 지속적인

56) 沈志华, “朝鲜战后重建与中国的经济援助1954-1960.” 『中共党史研究』, 2011年第3期, p. 51.

57) 위의 글, p. 50.

5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도서출판 중심, 2001, p. 319.

59) 鲁雷, “中共三代领导集体对朝鲜半岛国家外交思想研究.” 陕西师范大学, 2008, p. 11.

60) 위의 글.

61) 河凡植(2009), 앞의 글, p. 76.

62) 陈峰君·王传剑, 『亚太大国与朝鲜半岛』, 北京大学出版社, 2002, p. 306.



관계 악화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다. 1969년 10월 중국은 북한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20주년 기념식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최용건(崔庸健)을 초대하였고, 6개월 후에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중국이 일본 및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에 나섰을 때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인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통일 이런 북한의 핵심이익적인 이슈에서 북한의 입장을 굳게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불만을 어느 정도로 완화하였다. 1971년에 중국은 연합국의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후 한반도에서 북한이 유일한 합법적 정권이라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이 연합국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sup>63)</sup>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미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중소 분열 후 소련이 한반도에서 중국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에 발생한 일부 갈등이 존재하였지만 쌍방의 이데올로기적 공유와 공동의 역사적 일체감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1970년대 초 중미간의 적대국면이 끝나고 유엔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위상을 획득하였지만 소련과의 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관계로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였다. 즉, 중국은 자신의 실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기별로 미소로부터 온 위협을 억제하려면 북한과의 동맹관계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 2. 덩샤오핑 시기: 혈맹 추구하고 실리 모색

10년 간 문화 대혁명을 경험한 중국은 국내경제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세계 은행 통계에 따르면 1978년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에 190달러밖에 안 되었다.<sup>64)</sup> 중국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내세웠고, 주변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전면

63) 王宇·姜龙范, “中美正常化与两国对朝鲜半岛政策的调整.” 『延边大学学报』, 2013年6月, p. 29.  
 64) “1978年以来我国经济社会发展的巨大变化.” 『人民日报』 ([http://www.gov.cn/jrzq/2013-11/06/content\\_2522445.htm](http://www.gov.cn/jrzq/2013-11/06/content_2522445.htm) 검색일:2015.12.13.).

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당시 소련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 중소양국은 대립상태에 처했는데, 양국은 서로 이데올로기적인 비난을 강화하고 안보전략에서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소련은 중·소 국경에 50개 사단을 배치하였고 몽골에서 8만 군대를 주둔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련 태평양 함대에 항공모함 및 20여척의 대형 수상함을 증강하였다.<sup>65)</sup> 1978년 소련이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중국은 점점 강한 위협을 느꼈고 주변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련 및 베트남의 영향력 확장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1978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소련이 중국을 상대로 만든 포위망에 가입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김일성에게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 및 현대화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sup>66)</sup> 역시 그는 미국 및 일본과 대화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 쪽의 이해를 구하려 하였다. 대미·일 접근으로 인해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고 소련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덩샤오핑이 북한 국가 수립 30주년 기념 행사에 등장하여 “북중이 끊임 없이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북중 양국 인민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되고 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이익에도 부합된다. 우리는 서로 학습하고 지지하고 도우면서 함께 발전되었고 쌍방간의 정치경제 및 문화 여러 방면의 협력도 새로운 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sup>67)</sup> 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문화방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였고,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종전의 혁명성으로부터 벗어난 중국외교이념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 연설은 이후 북중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은 “평화 및 자주적 통일”을 주장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에 큰 장애로 간주하였다. 1978년에 제33차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중국대표 황화(黄华)는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관건은 미국이 한국에서 모

65) 饶小琴, “试析20世纪70年代中越关系剧变原因之苏联因素.” 『西伯利亚研究』, 2011年第五期, p. 81.

66) 『邓小平年谱1975-1997(上)』,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2004, p. 372.

67) 刘金质·杨淮生,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1949-1994)』,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 p. 2238-2481.

든 부대와 무기장비를 철수하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인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sup>68)</sup> 이에 따라 중국은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 쌍방이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제도를 수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을 지지하였다.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남북 3자 회담과 협상 방법을 제의하였다.<sup>69)</sup>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북한을 소련을 대항하도록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대 중소관계에서 적어도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북한에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여 소련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 북한에 40대의 A-5형 전투기, AN2형 비행기, T62형 탱크 장비를 원조하고<sup>70)</sup> 1978년과 1979년 북한에 매년 약 100만 만톤의 원유를 원조하였다.<sup>71)</sup> 1982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원이 1억 달러에 도달한다.<sup>72)</sup>

하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중소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북중간 긴밀한 관계로 소련에 대항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대북정책은 점차 조절되었다. 그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시한 대외 원조는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 대외원조의 방침은 쌍방의 경제무역의 합작을 추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두었다.<sup>73)</sup>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북중간의 혁명적인 유대와 우호적 관계로 인해 크게 부각되는 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를 이루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다소 원활해졌다. 중국외교부부장 황화(黄华)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문을 닫지만 잠그지는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즉 중국은 한중관계를 능동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특정시기에 특수적인

68)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241.

69)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405-2412.

70) Choon Heum choi, “The Two Superpowers in China’s Alliance Policy toward North Korea, 1969-1989.” p. 83; 孟召然, “试论中国的朝鲜半岛政策1949-1992.” 湘潭大学硕士论文, 2012, p. 25. 각주6.

71) 河凡植(2009), 앞에 글, p. 79.

72) Jae Kyu Park,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A New Perspective』, 1999, Westview Press, p. 187; 孟召然, “试论中国的朝鲜半岛政策1949-1992.” 湘潭大学硕士论文, 2012, p. 25. 각주5.

73) 朱慧博(2008), 앞에 글, p. 21.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74)</sup> 그런데 1983년 5월 중국 여객기 불시착 사건으로 한국전쟁 후 양국의 첫 공식 접촉이 있었다.<sup>75)</sup> 이 사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민간, 경제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점차 증가시켜 나갔다.

덩샤오핑 시기 중국은 대내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한 반면 북한은 고도의 집중적인 계획경제를 견지하고 이데올로기적 우위성을 강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 양국은 높은 수준台灣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최대한 북한을 원조하였다. 중국이 취한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sup>76)</sup> 것인데, 이는 동맹국을 대처하는 중국의 독특한 외교방침이었다.

이 기간에 북·중 양국의 당, 정, 군 고위층 간에 빈번한 상호 교류가 있었다. 중국은 대외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지만 북·중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up>77)</sup> 1978~1989년 11년 동안에 양국의 고위층간의 상호방문 횟수는 20회에 달하였는데, 그중 북한측의 방중 횟수가 10회, 중국측의 방북 횟수가 10회였다.(표2)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도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간의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정세 완화를 도모하였다.

덩샤오핑 시기 북중관계는 여전히 중소불화의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은 북한과의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소련이나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을 원지 않았다. 따라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중 동맹관계는 북한보다 중국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다.

74) 陈峰君·王传剑, 『亚太大国与朝鲜半岛』, 北京大学出版社, 2002, p. 310.

75) 1983년 5월 5일, 탁장인(卓长仁)등 6명 납치범들이 중국 민항기를 납치하여 춘천비행장에 강제 착륙하였다. 중국 민항국 장관 심도(沈图)는 한국에 가서 이 일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은 중국에 귀환하였는데 탁장인 등 6명 납치범들은 “반공의사(反共义士)” 로 1984년에 대만으로 넘겨졌다.

76) 程光福·王前军, “邓小平与中国对外援助.” 『黑龙江史志』, 2014年23期, p. 273.

77) 王宇·姜龙范, “中美正常化与两国对朝鲜半岛政策的调整.” 『延边大学学报』, 2013年6月, p. 29.

## 제3장 장쩌민 시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 제1절 대외 정책의 성격

마오쩌둥 시기의 ‘일변도’ 정책, ‘한선 전략’ 및 덩샤오핑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대외정책은 당시의 중국 국가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장쩌민 시대는 덩이 제기한 개혁개방정책을 정착시키는 동안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평화로운 대외정책을 추구하였다.

1989년 천안문사건이 발생하였다. 덩샤오핑은 국가의 권위가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덩샤오핑은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의 지도자들이 자국 시위대에 대해 양보하였기 때문에 사태가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던 자오쯔양(趙紫陽)은 실각되었다.<sup>78)</sup> 같은 해 6월 23일 중국 제13기 4중전회가 열려 장쩌민이 당총서기로 선출되었다.<sup>79)</sup>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천안문사건에 민주탄압 및 인권문제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다. 천안문 사건 발생 후 2년 뒤인 1991년 소련이 해체 되는 국제환경에 직면하였다. 이런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내의 경제를 전력으로 건설하고 직접적인 대항을 피하기 위하여 냉정관찰(冷靜觀察), 침착하게 대처함(沉着应付), 도광양晦(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为) 등을 방침을 제시하였다.<sup>80)</sup> 중국은 외부의 제재가 닥치더라도 자신의 경제 개발에 계속 집중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하여 장쩌민 초기 중국의 외교목표는 대외적 영향력을 확장할 의도는 없었고 국내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환경의 차원에서 냉전의 해체는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양 진영의 군사적 대결을 특징으로 한 패권 경쟁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

78) 傅高义, 『邓小平时代』, 三联书店出版社, 2013, pp. 565-595.

79) 冷溶汪作玲, 『邓小平年谱 1975-1997下』,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2004, p. 1283.

80) 王缉思, “中国的国际定位问题与‘韬光养晦,有所作为’的战略思想.” 『国际问题研究』, 2009年第5期, p. 6. “도광양晦”란 자신의 부족점을 관찰하고 보완하면서 내재적인 수양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즉 국제의 정세가 중국에게 불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여 계속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량을 통해 소련을 견제할 의미가 없어지면서 중국의 전략적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소련을 대신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지탱하는 ‘맹주’가 되었다.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경쟁상대로 간주하였다. 서방세계에서 중국의 역량 증가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중국에 대한 불안 및 불신임으로 표출되었다.

1992년부터 ‘중국위협론’이 대두되었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었고 문화적인 자신감의 증가에 따라 국가관계에서 ‘권력 이동’을 가져오고 현존의 ‘권력 피라미드’구조가 파괴되어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의 도전을 일어났다는 것이다.<sup>81)</sup>

중국 국내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개혁개방을 실시한 10여 년간 서방과의 무역 및 문화교류는 민주선거 및 언론 자유론 등 서방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게 하였으며 중공의 일당독재 및 사회주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부르주아 자유화를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sup>82)</sup> 장쩌민은 ‘부르주아 자유화’에 대해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중국인민의 민족 독립, 인민해방 및 사회주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수립할 수 있으며 특색 사회주의야말로 국가부강 및 인민의 행복을 줄 수 있다.”<sup>83)</sup>고 말함으로써 공산당 영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대체 불가의 절대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개혁, 발전 및 안전 3자의 관계를 서로 조화롭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 하면서 모든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부르주아 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장쩌민은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서방의 민주사상을 반대하는 태도를 통해 중국의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서구의 공세에 대해 대처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9월 제15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국제정세 및 대외정책’ 의제에서 중국위협론 및 국내의 ‘부르주아 자유화’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관점을 표명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화 및 발전은 현재의 주제이다. ② 다극화추세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 안전 및 번영에 유리하다. ③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자국의 사회제도와 이데올

81) 李小华, “‘权力转移’与国际体系的稳定—兼析‘中国威胁论’.” 『世界经济与政治』, 1999年 5期, p. 44.

82) 『邓小平文选』, 第三卷 pp. 123-125, 194-197.

83) 江泽民, “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 把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65445/4526285.html> (검색일: 2015.11.1.).

로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④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의 건립을 추진하는데 주력한다. 평등 호혜의 원칙으로 각국과 무역 거래 및 과학기술 문화교류를 전개한다. ⑤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사회제도 및 발전전략 생활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⑥ 선린 우호를 지켜 나가야 하고 제3세계국가와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 ⑦ 호혜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및 다른 국제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한다.<sup>84)</sup>

중국은 외부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발전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평화와 발전(和平和發展)” 정책을 강조하였다. 자신은 미국과 패권을 다툰 의지가 없고 이웃나라에 대한 의심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곤 했다. 내부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것이란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는 미국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 및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중국 국내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함이었다.

중미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지만 냉전 종식 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나선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전략적 동반자이자 경제 무역 파트너였다. 중국에게는 제일 중요한 양국관계 중의 하나로 평화적인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이부동(和而不同)’<sup>85)</sup>의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갖추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의 건립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적 협력 메커니즘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2월에 성립된 보아오 포럼(博鳌亚洲论坛 Boao Forum for Asia) 및 2001년 6월 성립된 상하이 협력기구(上海合作组织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지역협력체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협력기구는 미국의 참여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국제기구 및 조약과 관련하여 중국은 1992년 3월 ‘핵확산금지금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가입하였다.<sup>86)</sup> 1996년 9월에는

84) 江泽民, “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 把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65445/4526290.html> (검색일: 2015.11. 1.).

85) “군자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하기를 요구하지는 않다” 는 뜻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이익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86) 郑启荣·孙洁琬, “论世纪之交的中国多边外交.” 『当代中国史研究』, 2001年11月第6期, p. 55.

중국이 주동적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을 체결했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굳게 지지하면서 확산방지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87)</sup> 1997년에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을 체결하여 이 협약의 체약국가가 되었다.<sup>88)</sup>

아시아지역에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 중재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 국제적인 긴장 및 충돌을 대처하기 위해 상호 신뢰·상호 이익·평등·협상을 핵심으로 한 ‘신안전관’을 내세웠다. 이것은 군비를 감축하고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자대화론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sup>89)</sup>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주변국가 및 세계 각국 사이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장쩌민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 1996년 4월에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의 지향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1997년 5월 프랑스와는 ‘장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같은 해 10월 미국과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11월 일본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21세기 지향적 선린 우호 협력 관계’, 12월 아세안과 ‘21세기 지향적 신뢰로 선린과 동반자 관계’, 1998년 4월 유럽연합과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으로 안정된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제각기 수립하였다.<sup>90)</sup>

장쩌민 정부는 또한 주변국가에 대해 ‘선린우호’의 정책과 평화공존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 베트남 등과 관계를 개선하였다. 1980년대말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몽골, 라오스와 수십년간에 걸친 반목을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역사적으로 왕래가 있는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적극적인 우호관계를 맺었다.

87) “中国签署《全面禁止核试验条约》.” 中国外交部网

<http://www.mfa.gov.cn/chn/pds/ziliao/wjs/2159/t8992.htm>(검색일: 2015.10.5.).

88) “1997年4月29日,禁止化学武器公约生效.” <http://www.people.com.cn/GB/historic/0429/1382.html> (검색일:2016.5.22.).

89) 高朗, “后冷战时期中共外交政策之变与不变.” 『政治科學論叢』, 第21期, 2004, p. 32.

90) 위의 논문, p. 31.



<표 1> 시기별 중국의 국가이익 변화

구분	국가이익의 중점	대외정책	대한반도정책
마오쩌둥 (1949-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정권</li> <li>· 영토완정의 수호</li> </ul>	대소련 일변도 정책 (1950-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데올로기 중시</li> <li>· 시기별로 소련 또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중 동맹관계 유지</li> </ul>
		반미제국주의, 반소련수정주의 (1960-1972)	
		대미 연합, 반소정책 (1972-1976)	
덩샤오핑 (1978-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주권, 국가안전의 확인</li> <li>· 경제이익의 국가이익으로 격상</li> </ul>	화합중시(以和為貴)의 평화공존 5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관계를 유지</li> <li>· 1980년대 말 북한에 사전통보관례 집행과 동시에 한국과의 접촉·교류 시작</li> </ul>
장쩌민 (1989-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발전 정착</li> <li>· 유리한 발전환경구축 시도</li> </ul>	평화와 발전의 전제하에 다자외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수교로 인한 북중관계 냉각</li> <li>· 미국의 대중역제에 대응하여 북중 우의를 재강조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li> </ul>

외교는 경제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기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강쩌민시기 외교의 기본 내용이였다. 덩샤오핑의 양자 관계를 치중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Never take the leading role)’ 것과는 달리 장쩌민의 외교사상은 덩의 외교정책을 중점적으로 발전하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토대위에서 ‘국가간의 공통점을 취하고 전면적으로 세계의 사업에 참여’<sup>91)</sup>하는 것이였다. 장쩌민 시기의 대외정책은 양자 및 다자외교를 병행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였다. 물론 이런 변화는 그의 대외정책이 덩샤오핑의 대외정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국력의 변화에 따라 자체에게 유리한 발전환경을 주시하면서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91) 李阳华, “江泽民外交思想研究.” 浙江大学硕士论文, 2002, p. 35.

## 제2절 대북정책의 기초와 전개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 각국의 민주화 감정이 고조되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방침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고 자본주의 나라와의 합작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소련이라는 동맹국의 지지를 잃고 고립상태에 놓였다. 1989년에 천안문사건 후 중국은 애초의 현대화의 개혁적 이미지로부터 시위 군중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나라’로 변화되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비난하고 경제 제재를 실시하였는데, 중국은 이를 서방국가들이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경제 제재를 당한 중국과 고립상태에 처한 북한은 당장 양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양국 지도자의 상호 방문은 빈번히 이루어졌다. 1989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1990년 3월 장쩌민은 북한을 답방하였다. 1990년 11월에는 연형묵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1991년 5월에 리펑(李鵬)총리가 북한을 답방하였다.

같은 해 8월 당 총서기가 된 장쩌민은 북한노동당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崔光)에게 북한 노동당 및 정부가 중국정부의 반혁명적 폭동 평정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sup>92)</sup> 1989년 11월 김일성의 방중에서 양국의 지도부는 상호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북·중 양국은 당의 주도적 지위 및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93)</sup>

1990년 3월 장쩌민은 북한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중국은 중국과 한국이 무역 대표부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동유럽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쩌민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북한의 평화통일 방침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표명하였다.<sup>94)</sup> 장쩌민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교류의 확대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한편으로 소원해질 수 있는 양국 분위기를 다잡는데 진력하였다. 중국 언론은 “조·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이웃나라이고 순망치한의 불가분

92)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544.

93) 위의 책, p. 2550.

94) 刘金质·潘京初, 『中国与朝鲜半岛国家关系文件资料汇编(1991-2006)上』, 世界知识出版社, 2006, p. 11.

의 관계이며 조·중 양국은 역사적 전통과 영광이 밀거름이 된 우의 다정한 관계<sup>95)</sup>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양국관계를 다잡는데 힘썼다. 북한은 서방국가와의 관계에서 종교, 민주, 인권 등의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전파에 대항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일치한 북한을 각별히 여겼다고 볼 수 있다.

<표 2> 1978-1989년 북중 고위급 상호 방문

방문시기	중국의 방북	북한의 방중	방문형태
1978.9.8.~9.13.	덩샤오핑(邓小平) 당 부주석/부총리		친선방문
1981.1.10.~1.14.		리종옥 총리	공식방문
1981.12.20.~12.24.	자오쯔양(赵紫阳) 총리		공식방문
1982.4.26.~4.30.	후야오방(胡耀邦) 당주석		비공식방문
1982.4.26.~4.30.	덩샤오핑(邓小平) 당 부주석		비공식방문
1982.9.16.~9.25.		김일성 주석	국가방문
1983.5.20.~5.25.	우쉐첸(吳學謙) 외교부장		공식방문
1983.6.2.~6.12.		김정일 비서	비공식방문
1984.2.7.~2.14.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공식방문
1984.5.4.~5.11.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공식친선방문
1984.8.5.~8.10.		강성산 총리	공식방문
1984.11.26.~11.28.		김일성 주석	비공식방문
1985.5.4.~5.6.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비공식방문

95)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552-2593.

1986.10.3.~10.6.	리셴넨(李先念) 주석		친선방문
1987.5.21.~5.25.		김일성 주석	공식친선방문
1987.11.9.~11.14.		리근모 총리	공식친선방문
1988.9.7.~9.11.	양상쿤(楊尙昆) 주석		친선방문
1988.11.3.~11.7.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공식방문
1989.4.24.~4.29.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		공식친선방문
1989.11.5.~11.7.		김일성 총비서	비공식방문

출처: “中华人民共和国驻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大使馆”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그해 10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장쩌민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김일성이 제기한 ‘한 민족, 한 나라, 두 제도, 두 정부’의 전제하에 연방제의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임을 표명하였다.<sup>96)</sup> 그러나 중국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여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은 주지는 않았다. 1991년 10월 리펑(李鵬)총리는 중국이 수해로 인해 250억 킬로그램의 식량을 손실하였음을 알려주면서 북한의 지원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였다.<sup>97)</sup> 그 뿐만 아니라 1950년부터 시행된 현물 교환의 무역방식을 외환(달러)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양국 기업의 거래에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였는데, 이로부터 상호간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sup>98)</sup>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시기, 중국의 매체에서 더 이상 “남조선은 미제의

96) 刘金质·潘京初(2006), 위의 책, p. 18-28.

97) 姜龙范, “中朝关系的历史,现状与发展.” 『多元视野中的中外关系史研究—中国中外关系史学会第六届会员代表大会论文集』, 2005, p. 463.

98) 王勇, “1994年以来的中朝首脑外交活动探析.” 复旦大学硕士论文, 2010年, p. 19.

중속 및 주구”라고 부르지 않고 쌍방의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할 때도 있었다. 예컨대, 1991년 11월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핵무기 보유하지 않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sup>99)</sup> 이 시기 중국은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았는데 북한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전제하에 한국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개선하고 있었다.<sup>100)</sup>

이 시기 남북 쌍방의 접근도 이루어졌다. 남북의 교류 및 발전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안전이익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발전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990년 11월 총리 리펑(李鵬)은 연형묵(延亨默)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남북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며 중국정부는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를 지지한다.”<sup>101)</sup>고 하였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는 한반도 정세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국은 새로운 동반자를 획득하게 되었고 반면 북한은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국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언론 매체에서 “딸라로 팔고사는 ‘외교관계’” 등의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했다.<sup>102)</sup> 한편으로 한소 수교는 북한의 체제적 불안감과 자존심을 자극하였다. 1992년 4월 양상쿤(楊尚昆)이 중국 당정대표단을 대동하고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은 사전협의도 없이 중국이 선두에서 “사회주의 사업발전-수호 선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03)</sup> 당연히 중국은 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북중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북한이 이념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때 중국은 시장경제든 계획 경제든 그것은 자원배분의 여러 수단 중의 하나뿐이라고 여겼다. 중국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99)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597.

100) 刘金质, “中韩建交十周年综述.” 『韩国学论文集』, 第十辑, p. 1.

101)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572.

102) “딸라로 팔고사는 ‘외교관계’.” 『로동신문』 1995년 10월 5일.

103) 庞朕·杨鑫宇, “从同盟到伙伴-中朝关系的演变.” 『世界纵横』 2008, p. 86.

<표 3> 북중무역통계 1992-2002

(단위: 백만 달러)

년도	대중수출액	수출총액	수출총액 비중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수입총액	수입총액 비중 (%)	중국과의 무역총액	북한 무역총액	대외무역의 중국 비중 (%)	중국과 무역액 대비 GNP의 비중 (%)
1992	155	1096	14.1	541	1633	33.1	696	2729	25.5	3.3
1993	297	1168	25.4	602	1664	36.2	899	2832	31.7	4.3
1994	199	1034	19.2	425	1287	33.0	624	2321	26.9	2.9
1995	63	959	6.6	486	1380	35.2	549	2339	23.5	2.4
1996	68	908	7.5	497	1320	37.6	565	2858	19.8	2.6
1997	121	1097	13.3	534	1387	38.5	655	2485	26.3	3.7
1998	51	651	11.0	356	1013	35.1	407	1664	24.5	3.2
1999	42	637	6.6	328	1086	30.2	370	1723	21.5	2.3
2000	37	708	5.2	451	1686	26.7	488	2395	20.4	2.9
2001	166	826	20.1	571	1847	30.9	737	2673	27.6	4.6
2002	271	1024	26.5	467	1895	24.6	738	2842	25.9	4.3

출처: 宋国友, “中国对朝鲜的经济影响力分析.” 『韩国研究论丛』第十七辑, 2007, p. 87.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 이후 10년간 북중 무역은 후퇴 내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추어보면,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70~80년대를 거쳐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은 중국에게 더 매력적이었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영관리 경험과 기술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북중 친선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고 남북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조중의 우호관계에 상해를 주지 않는”<sup>104)</sup>다는 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1991년 9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한중 관계정상화의 저해요인도 완화되어 한중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월 중국의 교부장 첸치전(钱其琛)은 대표단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104) 詹姆斯·麦格戈, 戴蒙·达林, “北京通往汉城的经济桥梁.” 『编译参考』, 1992年第3期.

협력체 제3회 장관급회의에 참가하는 동안 노태우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로서는 최초로 한국 정상과 만난 것이다. 1992년 4월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제48기 연차 총회에서 한국 외무차관 이상옥은 중국총리 리펑(李鵬)과 만나 양국 경제 관계의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고위인사들의 만남은 한중 수교 협상을 예고하였다.<sup>105)</sup> 이어지는 3개월에 걸친 비밀 협상을 통해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중수교가 북한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중수교의 공식 공고문 발표 전인 7월 중국외교부장 첸치천은 당중앙의 특사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한중수교의 결정에 대해 통보하였다. 김일성은 “중국의 독립자주적인 외교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첸치천의 회고록에는 김일성의 불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김주석은 우리가 가져온 옥 조각품 구룡희주(九龍戲珠) 및 신선리치(荔枝)를 잠시 보고 서둘러 손님을 배웅하고 회담을 끝냈다. 나의 기억 속에서 이번 회담은 김주석이 중국대표단을 만난 회담중 시간이 가장 짧은 회담이었다. 회담 후에 이전 관행에 따르는 연회도 초대하지 않았다”.<sup>106)</sup> 북한이 한중 수교에 대해 보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수교가 임박하자 북한의 언론 매체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는 주체를 세우면 승리와 영광이 있지만 사대와 교조에 빠지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사회주의가 실패하기 마련이”<sup>107)</sup>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겨냥하여 자기 불만을 표현하였다. 그와 함께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공고와 평화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선포한 낡은 대결관념을 가지고 대조선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시대착오”<sup>108)</sup>한 언급하였다. 사회주의 동맹국의 ‘배신’에 대한 돌파구로서 북미관계의 개선을 대안으로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중수교에 낙심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대표단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 “새로운 평화 보장 체제”를 건립할 것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sup>109)</sup>

낙담한 북한을 달래기 위한 중국측의 조치도 이어졌다. 북한 정부 수립 설립

105) 陈峰君·王传剑, (2002), pp. 313-314.

106) 钱其琛, 『外交十记』, 世界知识出版社, 2003, p. 159.

107) “강한 자주정신을 지닌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1992년 8월 22일.

108)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 『로동신문』 1992년 8월 25일.

109) 庞脱·杨鑫宇, “从同盟到伙伴-中朝关系的演变.” 『世界纵横』, 2008, p. 86.

44주년 축하문에서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와 인민은 조-중 우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변함없이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고 자주적 평화 통일사업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북중 우의의 발전과 공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sup>110)</sup>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실망감을 완화하기 위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였고, 한중이 수교한다고 해서 북한을 절대 홀대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한 평화적 통일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반복해서 표명하였다.

한중수교 후 1년 동안 북중 양국은 매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당연히 양국의 정상급 지도자의 상호방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쪽에서 자발적으로 접근을 시작하였다. 1993년 7월과 9월에 중국은 당정 대표 및 전국 인민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반면 북한은 1993년에 12월 예술단을 중국에 보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장쩌민은 북한측을 달래는 조치로서이 예술단을 접견하였다.

중국의 초대 주한대사 장팅옌(張庭延)은 한중수교는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다.<sup>111)</sup> 중국 주북대사관 정의(鄭义)는 “중조 양국민의 장기적인 혁명 투쟁에서 맺는 우정은 시련을 버티고서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변함없이 북한이 한반도정세를 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재빨리 실현하도록 바란다.”<sup>112)</sup>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이 다 중국의 이웃이라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진행하면서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북중관계의 심각한 경색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북한은 1994년 6월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을 비롯한 군사대표단을 중국에 보냄으로써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장쩌민은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조중양국은 순망치한의 우호적 이웃이고 양당 및 양국간의 전통 우호 관계가 있다”면서 “조중 우호관계의 강화와 발전은 우리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고 우리 전당전인민의 소원이다”고 강조하였다.<sup>113)</sup> 같은 해 9월 북한외교부 특사 송호경(宋浩京)는 중국 방문시 중국외교

110) 刘金质·杨淮生, (1994), 위의 책, p. 2614.

111) 刘胜湘·李明月·戴卫华, “从中国的联合国投票看中国的朝鲜半岛政策.” 『社会主义研究』, 2013年第6期, p. 143.

112) 刘金质·潘京初(2006), 위의 책, p. 58.



부 부부장 탕자취안(唐家璇)과 한반도 평화 보장 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중국은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인민 지원군대표를 철수하게 되었다.<sup>114)</sup>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철수는 북한의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과 다른 북중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변화로 대외무역의 공간이 한정된 처지에 놓였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원자재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해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1994년 기근이 발생하였고 1995년 수재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부족상황이 심각해졌다.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1995~2000)’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 북한은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1995년 10월 중국은 수재를 입은 북한 지역 복구를 위해 3,000만 인민폐의 재난 구조 물자를 제공하였다.<sup>115)</sup> 1992년에 폐지되었던 북중 “무역 우화가격제도”를 부활하였다. 1996년 5월 북한 부총리 홍성남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경제기술 합작협정’을 체결하였고 북한에게 2만톤의 식량지원도 제공하였다.<sup>116)</sup> 1997년 중국은 33만톤의 식량을 15만톤과 18만톤 두 차례에 나누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sup>117)</sup>

<표 4> 중국의 대북원조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북수출액	534.7	355.7	328.7	450.8	573.1	467.7
대북원조	34.3	32.0	48.4	27.6	69.1	16.0
비율	6.4%	9.0%	14.7%	6.1%	12.1%	3.4%

출처: 金香海, “中朝经贸关系的现状与课题.” 『韩国研究论丛』, 2009年1期, p. 87.

현실사회주의 붕괴 후 고립에 처한 북한은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조치로

113) 刘金质·潘京初(2006), 위의 책, p. 109.

114) 위의 책, p. 116.

115) 위의 책, p. 171.

116) 위의 책, p. 196.

11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도서출판 중심, 2001, p. 279.

서 핵개발을 들고 나왔다. 1990년대 초 미국은 위성 정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였고 핵시설을 대상으로 사찰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안 되거니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다고 선언하였다.<sup>118)</sup>

1993년 3월 중국 외교부장 첸치첸(錢其琛)은 전국 인민 대표 8차 대회 중 가진 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과 국제원자력 기구간의 문제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제재를 반대한다”<sup>119)</sup>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북한 핵의 출현도 반대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재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인 것이다.

같은 해 4월 첸치첸(錢其琛)은 한국 외교부장관 한승주(韓昇洲)와 태국 방콕에서 만나 대화야말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5월 6일의 외교부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핵문제는 북미 및 남북간의 문제이고 각국간의 협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sup>120)</sup>는 입장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전략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국가간의 관계는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중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 관여를 피한 것은 아직 국내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보호막 구실을 하였다. 1994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중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4개국의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으로서는 북한 제재 조치가 북한의 과격한 반응을 일으켜 동북아지역의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21)</sup> 중국은 경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반대하고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는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부연되었다.<sup>122)</sup>

1996년 4월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피하면서 비무장 지대에 군대를 투입하자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되었다.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영구 평화 프로세

118) 蒲国良, “朝鲜半岛核危机问题的历史由来及其实质”, 『中国特色社会主义研究』, 2003.5, p. 71.

119) 刘金质·杨淮生(1994), 위의 책, p. 2623.

120) 위의 책, pp. 2623-2625.

121) 刘胜湘·李明月·戴卫华, “从中国的联合国投票看中国的朝鲜半岛政策.” 『社会主义研究』, 2013年第6期, p. 140.

122) 仇发华, “中国在朝鲜核问题上的作用及其受局限的原因分析.” 『东北亚论坛』, 2005年3月, p. 24.

스가 시작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4자회담의 취지는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이 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협상은 북미간의 일이라서 제3자가 참가하면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sup>123)</sup> 이듬해에도 북한은 남·북·미 3자 회담을 제기하였고,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 상호불가침 선언을 제의하는 등 중국을 제외하려고 시도하였다.<sup>124)</sup> 그렇지만 북한은 1997년 12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4자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 종식 후 중국은 ‘중국위협론’의 논리에 시달렸고, 또한 지리적 억제정책을 실시한 미국에 대항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역할을 경시하기가 어려웠다. 북중관계가 외부의 압력을 넘어서서 결정적으로 금이 가지 않은 이유는 양국 모두 국가이익의 필요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국 간의 경제적인 발전 방식을 따라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특별한 성질을 지닌 정상국가관계로 전화하고 있었다.<sup>125)</sup>

중국은 개혁개방 후에 세계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군사적인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에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비전통적인 국가이익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의제를 제기할 권리를 추구하고 지역 내 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폐쇄적인 북한에게 국제적인 연결을 도와주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의 핵심내용이 되었다.

1993년 후진타오 방북 후 중단된 북중 양국의 고위급 상호 방문은 1999년 6월에 와서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이끈 대표단의 방중으로 재개되었다. 고위급 외교의 재개는 관계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을 의미했다. 장쩌민은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중국 당 및 정부가 북중간 전통적 우의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26)</sup> 중국은 북한이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정상화를 실현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이들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할 조건은 조성되지 않았다. 이 때 중국정부는 북한에 15만 톤의 식량 및 40만 톤의 점결탄을 무상원조하였다.<sup>127)</sup> 북한 언론

123) 刘金质, “中国对朝鲜半岛国家的政策.” 『世界经济与政治论坛』, 2007年第5期, p. 82.

124) 黄河·吴雪, “新形势下中国对朝外交政策的调整.” 『东北亚论坛』, 2011年第5期, p. 58.

125) 周玲, “冷战前后中朝关系研究.” 电子科技大学硕士论文, 2010, p. 30.

126) 刘金质·潘京初, (2006), 위의 책, p. 298.

매체는 김영남의 방중에 대해 “공동의 투쟁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위력을 내외에 시위한 커다란 사변이었다”<sup>128)</sup>고 평가하였다. 같은 해 10월 중국외교부장관 탕자쉬안(唐家璇)이 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한중수교에 의해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복원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8년에 중국은 “정부공작보고”에서 주변국가인 조선(북한)·한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중요시하고 현상유지의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북의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권고하였으며 “두 개 한국” 입장을 바탕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의 개선을 지지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29일에 장쩌민의 초청을 받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국가지도자로서는 그의 첫 방중이었다. 김정일은 중국이 위대한 성취를 거두고 종합국력도 증가하여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미래를 향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sup>129)</sup> 중국은 종합적인 국력이 중요하다고 북한에게 알리고 주변나라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조언하면서 반 개월 후에 있을 남북간 정상회담에서 완만한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그의 방중은 2000년대 북중관계의 밀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8개월 후인 2001년 1월 김정일은 중국을 다시금 방문하였으며, 5일 일정에서 4일을 선도적인 발전 지역인 상하이에서 보냈다. 이 때 중국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타국의 경험과 북한상황을 결합하여야 폐쇄적인 상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적극 권고하였다.<sup>130)</sup> 같은 해 9월 장쩌민은 북한을 답방함으로써 양국관계가 혈맹관계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방문을 통해 중국은 식량 20만 톤과 중유 3만 톤을 무상원조로 제공하였다. 양국 지도자는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을 양국 친선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공식화하였다.<sup>131)</sup>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도 공고히

127) 위의 책, p. 298.

128)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20일.

129) 刘金质·潘京初(2006), 앞의 책, p. 329.

130) 王勇, “1994年以来的中朝首脑外交活动探析.” 复旦大学硕士论文, 2010年, p. 42

131) 刘金质·潘京初(2006), 앞의 책, p. 399.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천안문사건 후 경제건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견지하였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의 바탕하에 본국의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1990년 대 이후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성명만을 발표하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안전을 위해 협상을 통한 평화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반대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32)</sup>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미국의 불신 및 아태지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위기감이 있는데다가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측면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한 북중간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북중관계의 발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기조이다.<sup>133)</sup> 그래서 한중 수교 전에 중국은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적당히 조절하고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는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중국은 지정학적 전략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북중의 전통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최저 기본 생명선을 유지할 수만큼 대북 지원을 하였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실존하는 국제체계에 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sup>134)</sup>

장쩌민 집권 후반기에 중국은 ‘평등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선린우호와 이웃 동반자’라는 주변외교 방침을 세웠다.<sup>135)</sup>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남북 양측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에 남북이 대화 협상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여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32) 刘金质, “中国对朝鲜半岛国家的政策.” 『世界经济与政治论坛』, 2007年第5期, p. 83.

133) 周玲, “冷战前后中朝关系研究.” 电子科技大学硕士论文, 2010, p. 30.

134) 于洪洋·巴殿君, “论中朝关系及中国的作用.” 『辽东学院学报』 제14권 5기, p. 36-37.

135) 『중국2002년 국방백서』,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6/20021209/884482.html> (검색일:2016.5.5.).

## 제4장 장쩌민 시대의 대북정책 영향요인

냉전기 혈맹의 우호를 과시하던 북중관계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뒤이은 한중수교와 함께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대북정책을 규정 짓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거나 기존의 변수가 부각되었다. 그것들은 바로 북한 핵문제와 한중간 협력의 강화이다. 본 장에서는 북한 핵문제 및 한중의 교류를 살피면서 북중의 이익 분기점과 양국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 제1절 북한 핵문제

북한의 핵기술 연구는 국제적으로 핵기술 확산의 시기(1949년 8월~1970년 3월)에 시작되었다. 이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진영에서 핵무장을 확대하려 하였다. 195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26일 소련과 북한은 모스크바에서 <핵자연구소 성립에 관한 결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이 각자의 동맹으로부터 핵기술 원조를 받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sup>136)</sup> 물론 한국의 핵기술 발전은 미국에 의해 심히 억제되었으나 북한은 독자적인 핵기술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다. 1974년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입하였고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하였다.

앞에 언급했듯이 1990년 4월 미국은 평안남도 영변지역 핵시설에서 핵활동을 의심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에 따라 사찰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 시설을 원자력발전 시설로 해명하였고 핵무기개발을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은 핵무기개발 계획 및 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 비치한 핵무기가 북한안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하였다.<sup>137)</sup> 하지만 1991년 북한은

136) 姜龙范·王海凡, “朝鲜的核战略与核外交.” 『社会科学战线』, 2013년4期, p. 190.

137) 赵学功, 『当代美国外交』,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1, p. 167.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도 한국에 비치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듬해 1월 남북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당시에 한국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sup>138)</sup>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았지만 북한 핵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기술이 초급 수준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미국의 의혹 제기예 따라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지역의 핵시설을 “강제적으로 사찰”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한은 원자력기구가 사찰하려는 구역이 핵시설 구역이 아니고 군사기지임으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한 달 안에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팀 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고 미국군함을 동북아해역에 파견하여 활동하였다.<sup>139)</sup>

북한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1993년 3월12일 북한은 핵 확산 방지 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첫 번째 한반도 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 확산 방지 조약(NPT) 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고, “북·미,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및 남북간” 대화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sup>140)</sup> 그리고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유엔을 동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여 처리하자는 결의를 냈고 5월11일 안보리는 찬성 13표, 기권 2표로 제825호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핵 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권 2표 중 1표는 중국이고 1표는 파키스탄이었다. 이것은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강압정책을 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와 동시에 북한이 원자력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약을 탈퇴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로 보

138) 刘金质·杨淮生(1994), 앞의 책, p. 2596-2606.  
 139) 赵学功, 『当代美国外交』,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1, p. 168.  
 140) 刘金质·杨淮生 (1994), 앞의 책, p. 2623.

였다.<sup>141)</sup>

이후 각 관련 국가의 노력으로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고, 1994년 2월 핵사찰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7개 핵시설의 사찰에, 미국은 1994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간 고위급 제3차 회담을 실행하는 것에 각각 동의하였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라고 강조하였고 당사자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42)</sup>

첫 핵위기는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제네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였으며, 대신 미국으로부터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 받게 되었다. 또한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의 핵심 활동은 경수로를 건설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흑연감속로 발전소를 포기토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북핵 위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 리펑총리는 제네바 합의를 맺은 것을 환영하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직접 대화하는 방식은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sup>143)</sup>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의사는 드러나지 않았다. 제1차 핵위기 발생한 후 중국정부는 핵 확산을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지만 “개입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주권국가의 독립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 주된 이유는 1990년대 중국 국가이익의 전략적 중점은 국내경제발전 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외교적 영향력과 정치적 위상에서 타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었다.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체결한 뒤에 세부사항에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팽팽히 맞서 있었고 실행과정에서도 충돌이 그치지 않았다. 1996년 4월 한미는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자 중국은 이를 이해하고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하였다.<sup>144)</sup> 1997년 8월부터 남·북·미·중 4국 대표들은 뉴욕에서 예비

141) 刘胜湘·李明月·戴卫华, 앞의 논문, p. 140.

142) 刘金质·杨淮生 (1994), 앞의 책, p. 2642.

143) 위의 책, p. 2665-2674.

144) 刘金质·潘京初 (2006), 위의 책, p. 194.



회의를 열어 4자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12월 제네바에서 제1차 정식 회담인 4자회담체계를 구축하였다. 한반도의 긴장국세를 완화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 체제를 건립하는 것이 4자회담의 핵심요구로 받아들여졌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정세 완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중국은 각 당사국들이 대결 종식, 신뢰 증진, 관계 개선, 협력 발전, 충돌 방지, 논란 해결, 군비 축소 등을 실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45)</sup>

중국의 4자회담 참여는 중국은 애초 북핵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북핵문제를 남북·북미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스스로 주도자로 나서기보다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4자회담은 시작부터 대치국면에 직면하였다. 한미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조치의 합의를 점진적인 달성하기를 바라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및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선 논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999년 1월 4차 4자회담을 마치기까지 회담은 북미간의 상호비난 및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미국은 전략적인 수단으로 남북한의 충돌을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원래의 전략적인 우세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북한은 근본적인 전략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sup>146)</sup> 결국 4자회담은 북미 양측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방편으로 전략하였다.<sup>147)</sup>

2001년 부시정부가 출범한 후 보수주의를 신봉함에 따라 북미관계가 가일층 악화되었다. 그해 10월 미국은 특사로 방북한 미국 국무차관 켈리에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선포하였다.<sup>148)</sup> 12월에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유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은 영변지역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확산 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

145) 刘金质·潘京初(2006), 위의 책, p. 288.

146) 时永明, “国际核不扩散体制的困境与朝核问题”, 『和平与发展』, 2010年第3期, p. 10.

147) 金正浩, “朝鲜半岛问题”四方会谈的前景“,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1999年第2期, p. 29.

148) 김태운, “제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배경.” 『동북아연구』 제21권 1호, 2006, p. 126.

구의 전문가들을 추방 하는 등 한반도를 핵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이 때 장쩌민은 북한의 핵 확산방지조약 탈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국가들과 공동 노력으로 문제해결 의지도 표현하였다.<sup>149)</sup> 그는 핵금지조약은 전세계에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문제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도록 대북정책을 때로는 특수한 동맹관계로 배려하면서도 “국제적 준칙에 따른 정상관계”를 주장하였다.<sup>150)</sup> 그래서 북중관계는 겉으로 전통적인 관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혈맹관계는 이미 퇴색하였다.

북미는 상호 극단을 향하더라도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에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다. 중국은 북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8월에는 제1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국은 관련국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자체가 전면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과정의 일환이고, 확산방지를 이용하여 발전 도상국나라가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sup>151)</sup>

중국은 북한이 자기의 전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주변국가에게 불안전환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무책임하다고 보았다. 반면 미국이 확산방지를 이용하여 북한이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 간주한 핵계획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못마땅하다고 여겼다.

## 제2절 한중수교 및 등거리외교

중국공산당 집권 이래 북중관계는 두차례에 걸쳐 침체기에 빠졌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기간 홍위병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난해서 양쪽관계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지한 계기로 70년초에 양국관계는 회복되었다. 두번째 침체기는 바로 1992년 8월 한

149) 卞英奎, “中国在解决朝核问题上的作用-韩国安全专家的看法.” 清华大学硕士论文, 2012, p. 27.

150) 리단,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03.

151) 周宝根, “中国与国际核不扩散机制的一种建构主义分析.” 『世界经济与政治』, 2003年第2期, p.27.

중수교 시기였다. 중국은 한중관계의 정상화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필연적인 외교조절의 결과라고 간주하였지만 북한은 이로 인해 자국의 독립상태가 심화되면서 감정적으로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sup>152)</sup>

한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중간의 전통적인 정치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sup>153)</sup> 그래서 한중 수교성명 발표 당시 리펑은 한중 수교 후에도 북중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sup>154)</sup> 중국이 북중 관계를 여전히 중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리펑은 오히려 한중수교는 남북간의 대화 및 관계의 개선에 유익하고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자주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sup>155)</sup> 북한의 불만을 달래고 북중관계의 악화를 막고자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중수교 한 달 후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에서 한중 양국은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무역, 투자보호협정을 체결을 비롯한 경제적 협력의 가일층 강화에 합의하였다. 1993년 한중 무역총액은 82.21억 달러에서 1994년 117.20억 달러, 1995년 169.82억 달러로 증대되었다. 2001년 두 나라는 제3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sup>156)</sup>

한중은 무역투자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때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였다. 2000년에는 한중우호협력 관계를 전면적 발전 단계로 추진할 것을 선포하였다.<sup>157)</sup>

한중 양국의 고위급 방문도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장쩌민 주석(1995년 11월), 총리 리펑(1994년 10월, 2001년 5월), 국무원총리 주룽지(2000년 10월)가 방한하였고, 한국측에서는 노태우(1992년9월) 김영삼(1994년3월) 이홍구 총리(1995년 5월), 김대중(1998년11월)의 방중이 있었다. 한중관계의 심화에 따라 한중양국의 공동이익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인 가치는 더 이상 북중관계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북한은 ‘완충지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기에 북한의 체제 안정은 중국의

152) 石源华, “中国改革开放以后的对韩政策及朝鲜核问题.” 『韩国研究论丛』, 2003, p. 18.

153) 이종석, 앞의 책, p. 277.

154) 刘金质·潘金初(2006), 앞의 책, p. 51.

155) 위의 책, p. 58.

156) 刘金质·张敏秋·张小明, 『当代中韩关系』,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8, p. 178. 姚丽, “论中韩经济关系的影响因素(1979—2001).” 2005, p. 7.

157) “中韩关系.” <http://www.chinaemb.or.kr/chn/zhgx/shuangbian/t720117.htm>, (검색일: 2016.5.20.).

이익에 더 부합되었다. 따라서 한중수교 후에도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의 교를 최적의 대안으로 고려해 왔다. 중국은 한중수교로 북중관계에 준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지위를 인정해주었고 핵문제에서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등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북중의 경제교류는 침체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92년 중국은 현금결제 및 원조금지 등 새로운 경제 교류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1995년 중국은 북한의 실제상황에 따라 대북원조를 재개하였다. 철폐된 구상무역과 우호 가격제가 다시 부활되었고 1996년 양국은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소련의 해체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대중 의존도가 높아졌다. 2002년까지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24.3억 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북중의 무역액은 7.4억 달러로 1/3을 차지했다.<sup>158)</sup>

한중 수교 후 중국은 한국과의 발전을 원했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시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북한은 불리한 국제환경하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북중관계를 악화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남북한 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중국은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문제에서 남북한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방중 때 한중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안전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중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고 여겼고 한중은 마땅히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압박보다는 설득이 더 좋은 방법이 다는 공식을 얻었다.<sup>159)</sup>

1994년 3월 26일 중국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압박을 반대하고 대화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하였고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바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한중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정세의 평화 및 안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158) 曹志刚, “当代中朝贸易发展研究.” 延边大学博士论文, 2012, p. 60.

159) 赵玉芬, “中韩建交及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1992—2001).” 延边大学硕士论文, 2002, p. 30.

그러나 1994년 5월 북한의 영변 원자로 연료봉로 교체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긴장되었다, 5월 말 한미는 북핵문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및 군사적인 제재를 실행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미국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으로 10월에 북미간에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여 핵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였다,

한반도의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중국 일각에서는 북미간의 협의가 한국의 우려를 야기하게 되어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프로세스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60)</sup>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제3국의 참여없이 남북한의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하고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자신의 사리가 없다고 강조했고 남북한의 신뢰를 얻기 바랐다.

1995년 11월13일 장쩌민은 한국을 방문하고 한중관계에 대해 중국은 “호혜평등(平等互利), 우세를 상호 보완함(優勢互補), 진실합작(真誠合作), 공동발전(共同發展)”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을 지키고 자주적인 평화통일 방식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sup>161)</sup>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에서 제안하였다. 한국의 초청을 받은 중국은 4자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회담에서 북미 및 남북간의 목적이 불일치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에 회담의 결과는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애초에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각 관련국간 회담을 재개하는 자체가 진일보한 일이었다.

1998년 11월 김대중 방중시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약속하였고, 한국은 한중수교 6년간의 성과 및 4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대중 등장 후 한국이 실시한 대북정책인 햇볕 정책(Sunshine Policy)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sup>162)</sup> 이 정책은 미국·일본 등 서방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160) 위의 논문, p. 36.

161) “增进了解, 促进合作——江泽民主席访问韩国.” 『人民日报』 1995年11月18日.

162) “남북, 햇볕 속으로... ‘한반도 평화 전도사’ DJ.” 『노컷뉴스』, 2009년 8월 1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083675>  
(검색일: 2016.5.18.).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대북교류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남북관계의 호전과 동시에 북중관계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9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방중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2000년 5월 29일에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6월 15일 남북한은 남북한의 새로운 통일현장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소중한 성과를 거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사건 이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sup>163)</sup> 불편한 남북관계로 인해 처신이 힘들었던 중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남북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새로 등장한 부시 정부의 강령한 대북 정책은 남북간 관계의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미국의 억제수단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은 안보분야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한반도전략이익은 남북간의 화해를 결정하였고 북미관계의 개선에도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였다. 중국측은 민족간의 화해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sup>164)</sup>

이 시기 한중, 북중관계는 여전히 중국의 ‘평화발전’이라는 핵심이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한중 경제교류를 확대시키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였고 다른 한편 북한의 생존유지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그러한 입장은 냉전 후 한반도에서 한국이 우세한 위치에 있고 북한이 약세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이 한반도의 균형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가 작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 미국주도하에 독일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을 수 있으며 미국의 세력에 둘러싸인 중국이 불리한 전략적인 형국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생존유지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정권안정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동북아시아의 역학구조를 변화시

163) “中国外交部就朝鲜半岛南北双方首脑会晤顺利结束发表声明.” 『人民日报』, 2000年6月16日.

164) 刘清才, 『东北亚地缘政治与中国地缘战略』, 天津人民出版社, 2007, p. 265.

켰고, 이는 특히 중국의 ‘실리추구’ 발전노선과 북한의 ‘전통사회주의’ 노선간에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변수 속에 북중관계는 사실상 일반국가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5장 결 론

마오쩌둥 시기인 1950년대 중국은 미국의 공산주의 억제정책과 장개석의 대륙 회복 시도 등 요인으로 하여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고착화시켰다. 1960년대에 들어 중소관계가 악화되면서 소련의 팽창주의가 중국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자 중국은 북한이 소련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중 상호우호조약을 맺었다.

1970년 초 미중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소련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였기에 북중 동맹관계가 중국에게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1978년에 덩샤오핑은 대외개방 정책을 제기하자 북중 양국의 발전노선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중국은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안전한 외부환경을 추구하여 국내 경제발전을 중요국책으로 정하였다. 서방나라 주도하의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기회를 찾아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북한은 현실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중국이 자본주의에 타협하였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진영 내의 구성원이고 중국에게는 소련을 억제할 역할이 있었기에 덩샤오핑 시기에도 양국간 친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 국내의 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1980년대 말 북한에 사전통보관례를 집행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접촉과 교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장쩌민 시기 중국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취하여 발전을 추구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그 외중에 서방나라들은 소련을 대신하여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중국위협론”의 논조를 제기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영향 증대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서방나라의 기득권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라이벌로 간주하였다. 중국은 자기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발전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취했고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한중이 수교 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로 하여 한중관계 발전은 제약을 받았다. 미국의 영향력이 침투되어 있지 않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였다. 이를테면,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미



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대해 관련국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였다.

북한도 국내의 경제난 및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완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중 우호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국은 각자의 이익을 기초로 삼아 발전해 왔다.

국가이익은 양국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며 국가이익의 내용이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북중관계를 놓고 볼 때, 중국은 서방의 위협이 높으면 양국 관계를 중시하게 되고 서방의 위협이 약화되면 북중간 기존의 갈등은 다시 부각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발전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가 자국의 경제 안전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여겼다. 한반도에서의 영향을 확대하려면 남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억제한 미국의 정책과 대립하였다.

장쩌민 시기 국제정세 및 중국의 이익에 따른 대북정책에서 미지의 국면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전에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단기적 목표였다. 이를 위해 남북 및 북미간의 긴장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야 했다. 또한 남북 및 북미간의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 상태를 가능한 장기간 유지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남북간의 경제적인 협력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참 고 문 헌

- Joseph S. Nye 지음, 양준희·이종삼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파주: 한울, 2009.
- 김태운, “제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배경.” 『동북아연구』 제21권 1호, 2006.
-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영,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15.
- 리단,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03.
- 백성호, “탈냉전기 미일 안보동맹의 지속과 변화: 시기별 동맹이익과 동맹관계의 특징,”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1호, 2007.
- 알렉산더 웬트 지음, 박건영 외 옮김,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2009.
- 이근욱, 『왈츠 이후』 파주: 한울, 2009.
- 이수형,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세계정치』 16권, 2012.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 장선, “한중수교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장쩌민·후진타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2009.
- 조셉 프랑켈 지음, 이삼성 옮김, 『국익』, 서울: 대광문화사, 1991.
- 조혁진, “국가형성과 동맹의 제도화 경로.” 연세대 대학원 지역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1.
- 케네스 왈츠 지음, 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평론, 2007.
- 刘金质·潘京初, 『中国与朝鲜半岛国家关系文件资料汇编(1991-2006)上』, 世界知识出版社, 2006.
- 刘金质·杨淮生,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1949-1994)』,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
- 杨军·王秋彬, 『中国与朝鲜半岛关系史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陈峰君·王传剑,『亚太大国与朝鲜半岛』,北京大学出版社,2004.
- 崔志鹰,『大国与朝鲜半岛』,卓越出版社有限公司,2000.
- 阎学通,『中国国家利益分析』,天津人民出版社,1997.
- 沈志华·杨奎松,『美国对华情报解密档案(1948-1976)3』,东方出版中心,2009.
- 冷溶·汪作玲,『邓小平年谱 1975-1997下』,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2004.
- 钱其琛,『外交十记』,世界知识出版社,2003.
- 赵学功,『当代美国外交』,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1.
- 刘金质、张敏秋、张小明,『当代中韩关系』,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8.
- 傅高义,『邓小平时代』,三联书店出版社,2013.
- 张锡镇,“对朝鲜政策的再思考.”『国际政治研究』,2000 第2期.
- 朴键一,“朝鲜核问题及其未来走向.”『当代亚太』,2003年第3期.
- 周玲,“冷战前后中朝关系研究.”电子科技大学硕士论文,2010.
- 于化民,“三大政策与独立自主的新中国外交.”『安徽史学』,2007年第5期.
- 章百家,“从‘一边倒’到‘全方位’.”『中共党史研究』,2001年1期.
- 沈志华,“从西柏坡到莫斯科:毛泽东宣布向苏联‘一边倒’.”『中共党史研究』,2009年  
第4期.
- 蒋建农,“关于新中国外交方针的几个问题.”『当代中国历史研究』,1996年第2期.
- 沈志华,“中苏同盟破裂的原因和结果.”『中共党史研究』,2007年 2期.
- 迟爱萍,“毛泽东国际战略思想的演变.”『党的文献』,1994年第3期.
- 叶自成,“新中国外交思想:从毛泽东到邓小平.”北京大学出版社,2001年.
- 王宇·姜龙范,“中美正常化与两国对朝鲜半岛政策的调整.”『延边大学学报』,2013  
年6月.
- 王缉思,“中国的国际定位问题与‘韬光养晦、有所作为’的战略思想.”『国际问题研究』,  
2009年第5期.
- 刘宗义,“中国共产党国家利益观的发展演变.”『国际展望』,2011年第4期.
- 吴建功·龚长华,“邓小平国家利益观与中国国际战略.”『南京政治学院学报』,1998  
年5期.
- 薛衔天,“从并肩抗日到抗美援朝.”『近代史研究』,2012年6期.
- 权红,“中朝政治外交关系研究1949-2009.”延边大学博士论文,2010.
- 沈志华,“朝鲜战后重建与中国的经济援助1954-1960.”『中共党史研究』,2011年

第3期,

鲁雷,“中共三代领导集体对朝鲜半岛国家外交思想研究.” 陕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8.

饶小琴,“试析20世纪70年代中越关系剧变原因之苏联因素.”『西伯利亚研究』, 2011年第5期.

孟召然,“试论中国的朝鲜半岛政策1949-1992.”湘潭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程光福,“邓小平与中国对外援助.”『黑龙江史志』, 2014年23期.

李小华,“权力转移’与国际体系的稳定—兼析‘中国威胁论’.”『世界经济与政治』, 1999年 5期.

郑启荣·孙洁琬,“论世纪之交的中国多边外交.”『当代中国史研究』, 2001年11月 第6期.

高朗,“后冷战时期中共外交政策之变与不变.”『政治科学论丛』, 第21期, 2004.

李阳华,“江泽民外交思想研究.”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02.

姜龙范,“中朝关系的历史,现状与发展.”『多元视野中的中外关系史研究—中国中外关系史 学会第六届会员代表大会论文集』, 2005.

王勇,“1994年以来的中朝首脑外交活动探析.”复旦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庞朕·杨鑫宇,“从同盟到伙伴—中朝关系的演变.”『世界纵横』, 2008.

刘胜湘·李明月·戴卫华,“从中国的联合国投票看中国的朝鲜半岛政策”,『社会主义研究』, 2013年第6期.

蒲国良,“朝鲜半岛核危机问题的历史由来及其实质,”『中国特色社会主义研究』, 2003.

仇发华,“中国在朝鲜核问题上的作用及其受局限的原因分析.”『东北亚论坛』, 2005年3月

刘金质,“中国对朝鲜半岛国家的政策.”『世界经济与政治论坛』, 2007年第5期.

黄河·吴雪,“新形势下中国对朝外交政策的调整.”『东北亚论坛』, 2011年第5期.

于洪洋·巴殿君,“论中朝关系及中国的作用.”『辽东学院学报』 14卷第 5期.

时永明,“国际核不扩散体制的困境与朝核问题”,『和平与发展』, 2010年第3期.

金正浩,“朝鲜半岛问题”四方会谈的前景.”『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1999年第2期

卞英奎,“中国在解决朝核问题上的作用—韩国安全专家的看法.”清华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周宝根,“中国与国际核不扩散机制的一种建构主义分析.”『世界经济与政治』, 2003年第2期.

石源华, “中国改革开放以后的对韩政策及朝鲜核问题.” 『韩国研究论丛』, 2003.  
 曹志刚, “当代中朝贸易发展研究.” 延边大学博士论文, 2012.  
 姚丽, “论中韩经济关系的影响因素(1979—2001), 武汉大学硕士论文, 2005.  
 曹志刚, “当代中朝贸易发展研究.” 延边大学博士论文, 2012.  
 赵玉芬, “中韩建交及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 (1992—2001) .” 延边大学硕士论文, 2002.  
 刘清才, 『东北亚地缘政治与中国地缘战略』, 天津人民出版社, 2007.

George Liska,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1985.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October 28, 2001.

『로동신문』 1992년 8월 22일; 8월 25일; 1995년 10월 5일; 1999년 6월 20일.

『노컷뉴스』 2009년 8월 18일

『人民日报』 1995년 11월 18일; 2000년 6월 16일.

『人民网』 1997년 9월 12일; 2002년 12월 9일.